

민족고전 《천일록》의 서술적특징

리 희 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반만년의 오랜 과정을 거쳐 내려 오는 우리 민족의 력사는 그 기간에 창조된 문화유산을 통하여 전하여 지고 있습니다.》(《김일성전집》 제44권 241페이지)

민족고전 《천일록》은 우하영이 쓴 책으로서 조선봉건왕조말기에 편찬된 류서형식의 개인문집이다.

《천일록》이란 천마디의 말속에 한마디라도 들을것이 있을가 하여 기록한다는 뜻으로서 여기에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당시 사회생활의 면모를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들이 수록되어있다.

우하영은 18세기 후반기로부터 19세기초까지 경기도 수원에서 일생 학문을 연구하면서 벼슬길에 나서지 않은 선비였으며 봉건사회말기 실학자의 한사람이었다.

《천일록》은 1796년이전에 초본이 집필되었고 그 이후 자료들을 보충하여 1804년경에 11권 11책으로 완성되었다. 《천일록》은 출판되지 못하고 필사본으로 전해지고있다.

《천일록》은 우리 나라 봉건사회의 관직제도, 토지제도, 조세제도, 노비제도, 과거제도, 군사제도를 비롯하여 농업, 광업, 지리, 교육, 도덕, 풍습 등 여러 부분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거기에 이름난 학자들과 저자의 주장까지를 포함시켜 만든 문헌이다. 그로부터 류서로서의 특성이 있게 편찬체계를 갖추면서도 종래의 류서들과는 구별되는 측면이 있다.

《천일록》의 서술적특징은 무엇보다먼저 반영된 내용의 폭이 넓으며 서술에서 해당 현상과 문제들에 대한 연구, 분석을 위주로 하고있는것이다.

《천일록》은 그 내용의 폭이 넓고 봉건사회의 전반을 리해할수 있는 필요한 자료들을 풍부히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당시 개인저서가운데서 대표작의 하나로 된다.

《천일록》에서는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부문과 관련된 문제들과 외국에 대한 자료들, 그와 관련된 저자를 비롯한 당시까지 이름난 문인들의 주장들을 합쳐서 근 200여개의 항목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내용을 폭넓게 전개하였다.

이 책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자료들이 소개되어있고 특히 해당 현상과 문제들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깊은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천일록》에서는 선행실학자들이 주장하던 정치적문제들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보다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연구, 분석이 기본으로 되고있다.

그것은 정치, 국방, 경제관계의 전반을 서술하면서도 주로 현실과 밀접히 결부하여 그 해결을 위한 방도적문제를 서술하는것을 기본으로 하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실례로 《축성방략》항목에서는 국방에서 성을 잘 쌓는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당시 오늘날의 중국에서는 성곽을 벽돌로 축조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돌과 흙, 석회를 다져서 쌓는것이 유익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토성에 대한 서술에서는 흙을 다져 성을 쌓으면 비용도 절약할수 있으며 또 대포를 쏘아도 벽돌로 쌓은 성과 돌성은 부서져 무너지지만 토

성은 끄떡없다고 하면서 그 우점을 논의하였다. 뿐만아니라 토성은 기초로부터 한길씩 올라가면서 그 너비를 3보씩 작게 하는데(안면은 2보반으로, 바깥면은 반보로 한다.) 만일 기초가 20보이고 네길 되는 성이면 성우의 너비는 8보가 되게 하여야 하며 성밑의 흙을 파낸 자리는 깊은 해자로 하고 참호밖에는 탕자나무를 심어 적의 침입속도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성을 쌓는데 드는 석회, 숯과 기타 물자운반에 대한 비교적 현실적인 제안을 제기하였다.

《농가총람》편목에서는 《농사직설》이 나온 이후의 농업기술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종합하여 하나하나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서술하였다.

문헌에서는 《농사직설》에서 소개된 방법에 대하여 그것이 이미 옛날사람들이 시험해본 방법이지만 《아주 완전한 방법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내놓았다.

《만약 직설(《농사직설》)에 나오는 방법대로 12월의 눈녹인 물 또는 외양간에서 받은 물에 종자를 담그었다가 건져내어 해벌에 말렸다가 또 담그기를 세번씩이나 한다면 담그었다 말렸다 하는 동안 종자가 상하지 않는다고 누가 믿겠는가.》라고 쓰고 여기에 품을 많이 들이기보다는 그 로력으로 거름을 더 많이 장만하는것이 낫다고 하였다.

거름을 주는 방법에 대한 서술에서 그는 파벽토나 오랜 구들재를 거름으로 줄 때에는 그것이 《낮고 습한 밭에는 아주 유익하나 높고 건조하고 모래와 돌이 섞인 땅에는 도리어 가물을 더 타게 하여 곡식을 말라죽게 할 념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모든 거름을 각각 논밭의 구체적인 상태에 맞게 줄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가을보리밭은 작은 이랑을 만드려고 이랑을 따라 씨를 뿌림으로 거름도 이랑을 따라가면서 씨뿌린 곳에 주어야 그 효력을 충분히 내게 된다.》라고 하였다.

특히 모판에 덧거름을 줄데 대한 의견은 이 책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새로운 주장이다.

《천일록》은 그 문제설정과 분석각도, 연구방법 등 모든 면에서 제기된 문제를 문헌적 근거와 주해, 역사적분석과 설명으로 일관되게 함으로써 말기 실학의 학문적탐구의 깊이를 보여주고있다.

《천일록》의 서술적특징은 다음으로 일련의 진보적인 사회정치적견해를 서술하고있는 것이다.

《천일록》의 편찬자는 악법은 반드시 개정하여야 한다는 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토지제도, 과거제도, 노비제도, 군사제도에 관한 견해를 내놓았다.

《천일록》에서는 나라를 다스리는데서 백성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상을 내놓았으며 현실적으로 쓸모없는 《강경》을 위주로 하는 과거시험방법을 반대하고 과거시험을 퇴물과 돈벌이공간으로 여기는 통치배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였으며 문벌과 적서의 차별, 지방별차이에 관계없이 인재본위로 선발할것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세상에 둘도 없는 악법은 노비세습이라고 하면서 《종모법》에 의한 노비세습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양인출신의 군역부담자는 겨우 18만명정도인데 노비의 수자는 40여만명이나 된다고 하면서 노비의 수자를 대폭 줄이고 양인의 수를 늘이며 봉건신분제도를 고칠데 대한 제안들도 내놓았다. 한편 국방문제도 시급히 해결책을 요구하는 중대한 일이라고 하면서 역대 봉건국가들의 군사제도와 그 변천과정에 대하여 제기하고 국방상 중요한 요새지들을 옳게 장악하고 꾸려서 일단 유사시에 은을 나타낼수 있게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특히 무방비상태에 있는 나라의 국방형편을 바로잡고 문관을 중시하고 무관을 홀시하는 경향을 없애며 군사교육과 군사훈련을 강화하며 시험을 쳐서 재능있는 무관을 선발할데 대한 일련의 긍정적견해들도 제기하였다. 그리고 당시 조선봉건왕조가 설치하고 관리하던 나라안의 관방시설과 그 관리운영질서에 대하여 매개 도와 고을별로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그것을 개선하고 정비보수할데 대한 진보적인 제안들을 제기하였다.

《산수총론》의 편목에서는 외적의 침략이 예견되는 도로연선의 파괴된 산성들을 더 보강하며 특히 한성에 대한 위성방어대책을 세우고 수원독성을 보수하며 많은 병력을 항시적으로 주둔시킬데 대한 문제 등 여러 제안들도 제기하였다.

저자가 제출한 역을 지는 상변질서가 그 대표적인 실례의 하나로 된다.

그는 왕에게 제출한 책자에서 경기도 수원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병역상변질서를 내놓았다. 그가 제출한 제안을 보면 경기도 수원부에 주변의 몇개 고을을 인입하여 민호 총수를 2만으로 되게 한 다음 그중에서 병졸을 선발하여 36초(3 600명)로 조직하도록 되어있었다. 거기에는 조직된 36초의 상변, 하변질서와 날자별로 되는 조련방법, 군량미보충 등이 규정되어있다. 그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국의 번을 드는 절차와 병역부담에 대하여 상세히 제기하였다.

물론 저자가 내놓은 제안으로서는 병역부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수 없으나 저자가 내놓은 의견은 당시 백성들의 병역부담의 번잡성을 극력 줄이고 군사훈련을 강화할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제안으로서 당시로서는 일정한 의의가 있다.

《천일록》의 서술적특징은 다음으로 봉건사회의 부패상과 지배계급의 가혹한 착취행위에 대하여 폭로한 자료들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있는것이다.

《천일록》은 부패한 당대 사회현실을 비판하는데서 특히 량반관료들의 가혹한 착취행위에 대하여 폭로하고있다.

대표적으로 《어초문답》의 내용을 들수 있다.

어부와 나무꾼이 서로 만나서 시국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되어있는 《어초문답》에는 모순에 찬 당시의 현실이 생동하게 반영되어있다.

실례로 사람이 사치하고 안일한 생활에 빠져서 놀고먹는것을 좋게 여기고 농사짓는것을 수치로 여긴다고 하면서 놀고먹는자들일수록 잘 먹고 잘 입으며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일수록 못먹고 헐벗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량반들과 관청들에서 망탕 써버리는 모든것이 다 가난한 백성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것이라고 하면서 농민들의 생활이 가난한것은 농토가 적고 농호가 많은데 그 원인이 있는것이 아니라 통치배들이 농민들에게서 빼앗아만 가고 농사를 장려하지 않은데 있다고 쓰고있다.

책의 《곡부》편목에는 균역법실시이후 국가에서 부족되는 조세를 보충하기 위하여 별도로 어업세, 소금세, 배세, 군포 등으로 수탈한 사실이 상세히 밝혀져있다.

이밖에도 통치배들의 부패상과 착취행위를 보여주는 자료들은 《산삼의 폐단》, 《군포의 폐단》, 《죽보의 폐단》, 《학교의 폐단》 등 여러 측면에서 찾아볼수 있다.

《천일록》의 서술적특징은 다음으로 우리 나라 봉건사회의 정치, 경제구조 특히 자본주의적경제관계와 관련된 자료들을 적지 않게 서술하고있는것이다.

《천일록》에는 우선 우리 나라 봉건사회의 정치, 경제구조와 관련된 자료들이 적지 않게 올라있다.

《천일록》에는 력대 봉건국가들의 수도와 중앙 및 지방관료기구에 대한 자료, 봉건시기 우리 나라의 토지제도와 그 변천과정, 삼국시기부터 조선봉건왕조에 이르기까지 군사제도와 그 변천과정에 대한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실려있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 력대 봉건국가들의 과거제도와 그 변천과정, 과거절차, 과거제도의 문란 등 과거시험과 관련된 여러가지 자료들이 기록되어있다.

《천일록》에는 또한 우리 나라에서의 자본주의적경제관계와 관련한 자료들이 적지 않게 실려있다.

《천일록》의 《주전리해설》항목에서는 상품류통에서 화폐의 의의를 지적하고 균역법 실시이후 국가에서 돈을 너무 많이 주조해내기때문에 오히려 불편을 주고있다고 서술하였고 《채은편부설》, 《채금편부설》 등에서는 광점설치법에 경사로부터 물건과 재력을 대주게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물주가 없으면 광점을 개발하여 운영할수 없으므로 리속을 채우는자들이 다 공적인것에 빙자하여 경사를 기만하고 세금을 바치지 않으며 그 리득이 개인주머니에 들어가고있다고 하면서 경사에서조차 역시 사사로운 감정을 앞세우면서 납세를 독촉하지 않고있다고 하였다.

《비변사등록》 정조 12년 8월 18일조에서는 《농사를 짓지 못하는 백성들이 점민이 될 것을 바라게 된다. 그들이 그곳에 모여살면서 땅을 파내며 은을 주조해서 호조와 각 영, 고을에 세를 바치고 남은것은 물주에게 돌려주게 된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세금을 바치는 사람이 형식상 직접적생산자인듯 한 인상을 주고있다.

그러나 《천일록》에서는 은점과 금점의 경영에서 기본은 개인업자들이고 국가에서는 다만 광점개발허가만 해주고있다는데 대하여 서술하면서 직접 광산을 운영하는자(물주)들이 납세의무를 지고있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고있다.

이밖에도 《천일록》에는 조운선의 개인경영문제와 특히 봉건말기 우리 나라 시장의 확대발전에 대한 문제, 상업적리윤에 리용되는 도로의 확대발전에 대한 문제 등 당시의 형편을 알수 있는 많은 자료들이 서술되어있다.

이처럼 《천일록》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의 문제를 분석적으로 취급한 점에서 종래의 진보적인 저서들과 계승관계를 가지고있으며 중세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적문제들과 생활적인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있다.

이와 반면에 《천일록》은 사대주의적경향이 다분하고 봉건왕조를 절대시하는 등의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천일록》은 봉건사회의 면모와 당시의 형편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리해하는데서 일련의 사료적가치가 있는 귀중한 고전문헌이다.

우리는 앞으로 민족고전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에 펼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데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